

평  
연  
한  
,  
연  
대  
의  
건  
축

# 철쭉과 억새 사이

### 임영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주)디림건축사사무소 파트너

### 김선현

(주)디림건축사사무소 대표

### 개요

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산 219-11
용도	관광휴게시설(휴게소)
대지면적	28,707m <sup>2</sup>
건축면적	445.02m <sup>2</sup>
연면적	445.02m <sup>2</sup>
규모	지상 1층
높이	3.65m
건폐율	2.24%
용적률	2.24%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	286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마감	THK2,3 내후성강판, 노출콘크리트, THK24 로이복층유리
구조설계	은구조
설계	임영환, 김선현
설계담당	김완기, 하지선, 최정호
시공	(주)우영종합건설
기계설계	하나기연
전기설계	하나기연
설계기간	2018.10.~2018.12.
시공기간	2019.4.~2019.12.
준공	2019.12.
건축주	합천군청



반원 모양으로 펼쳐진 '힐콕과 억새 사이'



산세와 자연스롭게 어우러지는 건축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은 정확하게 반원의 형태이다.  
계곡을 등지고 산을 배경으로 건물이 서 있지만,  
그 높이가 낮아 황매평전의 산세를 거스르지 않는다.  
또한 햇빛을 피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고도의 평야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방문객이 잠시 쉬어가는 그늘과 휴식 공간



©윤준환, (주)다림건축사사무소 제공



©윤준환, (주)다림건축사사무소 제공



©윤준환, (주)다림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건물의 특으로 들어오는 빛  
 하 회색 조약들이 깔린 앞마당



상 건물의 틈으로 보이는 봄날의 철쭉  
 하 오렌지 빛을 띄게 된 외장재

©윤준환, (주)디림건축사사무소 제공



©윤준환, (주)디림건축사사무소 제공



©윤준환, (주)디림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황매산을 내려다 보는 '철쭉과 억새 사이'  
 하·좌 낫선 건축재료가 모여 조화를 이루는 모습  
 하·우 시간이 흘러 암적색으로 변한 내후성강판



‘철쭉과 억새 사이’는 건물의 틈으로  
철쭉과 억새가 언뜻언뜻 보이는 모습을  
상상해 지은 이름이지만, 한편으로는  
‘철쭉 보러 봄나들이 갈까’ 또는  
‘억새 보러 가을여행 갈까’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을 은유하기도 한다.



© 이명환 (저) 그림건축사사무소 건축공간

계곡을 등지고 있는 모습

## 황매평전

소백산맥의 고봉인 황매산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해발 1,108m 높이의 산이다. 정확하게는 합천군과 산청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합천호의 물속에 비친 모습이 호수에 떠 있는 매화와 비슷하다고 해서 '수중매'라고도 불린다. 황매산 정상 부근의 700m부터 900m의 지대는 평평한 둔덕 위에 몽툰한 봉우리를 엮어 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곳을 '황매평전'이라 부른다. 생긴 모양이 이렇다 보니 한동안 목장으로 사용되었고, 젖소를 풀어 기르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수목마저 거의 사라졌다. 일대가 민둥산이 되어 버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키 큰 나무 하나 없는 산 위 평야에 억새가 자라기 시작하였고, 언제부터인가 철쭉과 억새가 산 전체를 뒤덮는 장관을 만들어 내었다.

## 젖소목장의 변화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은 “자연에는 자연의 기록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람의 기록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황매평전에는 자연과 인간의 기록이 뒤섞여 있다. 목장이 운영되는 동안 황폐해진 산의 식생은 자연의 복원력에 의해 재생되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황매평전에 인간의 때를 한 번 더 묻혀야 하였다.

처음 황매산에 올랐을 때는 가을이었다. 억새군락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햇빛을 뒤로 받은 억새밭이 작은 바람에도 마치 은빛 비늘처럼 일렁였다. 억새를 보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서 건축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였다. ‘자연의 기록에 사람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건축 방식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 철쭉과 억새 사이

‘철쭉과 억새 사이’는 황매산군립공원의 관광휴게소이다.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억새밭이 펼쳐지는 해발 850m 등산로 길목의 대문 역할을 한다. 대지는 황매평전과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마치 계곡이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분리해 놓은 듯 보인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은 정확하게 반원의 형태이다. 계곡을 등지고 산을 배경으로 건물이 서 있지만, 그 높이가 낮아 황매평전의 산세를 거스르지 않는다. 또한 햇빛을 피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고도의 평야에서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 미켈란 / (주)미켈란건축사무소 제공



상 반원 모양으로 펼쳐진 '철쭉과 억새 사이'  
중 산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건축  
하 겨울 눈 내린 '철쭉과 억새 사이'



© 임진환 (주)디엠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회색 조약돌이 깔린 앞마당  
하 건물의 틈으로 보이는 봄날의 철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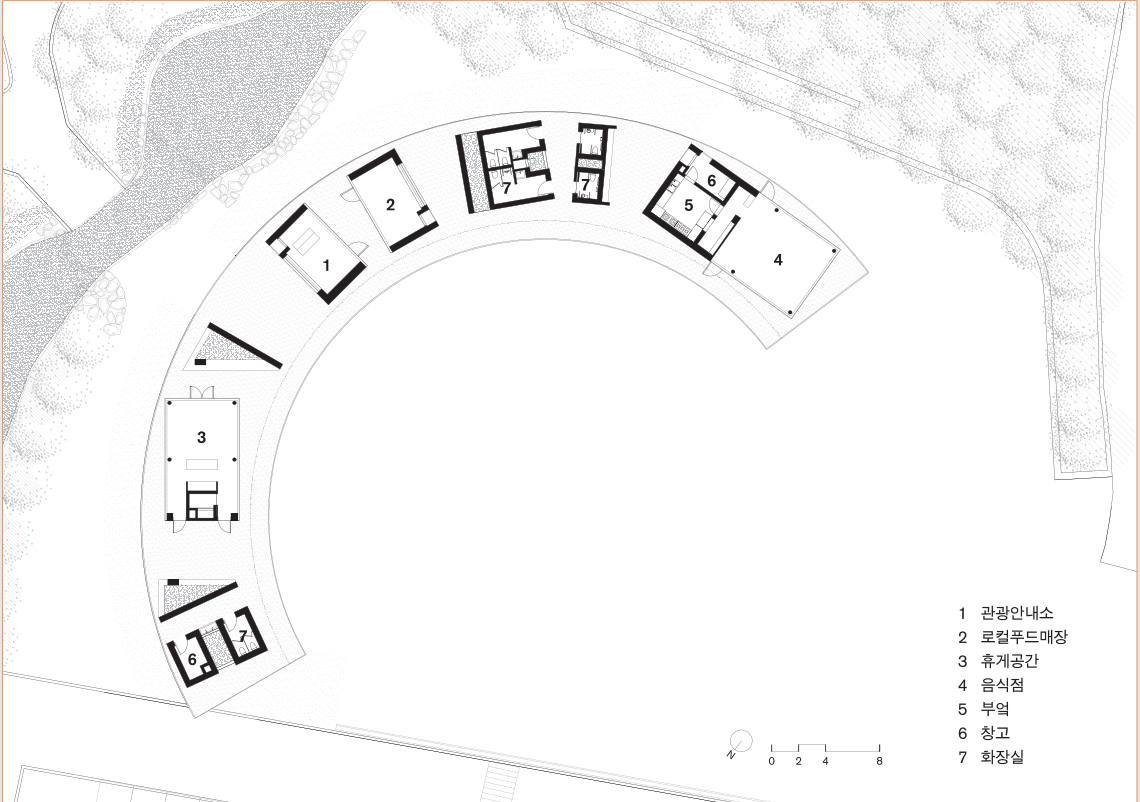
반원 모양으로 펼쳐진 건물은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공간이 비어 있다. 산으로 올라가는 동선이 건물로 막히지 않고 어디로든 연결되고, 봄에는 철쭉이, 가을에는 억새가 사이사이 틈새마다 들어온다. ‘철쭉과 억새 사이’는 건물의 틈으로 철쭉과 억새가 언뜻언뜻 보이는 모습을 상상해 지은 이름이지만, 한편으로는 ‘철쭉 보러 봄나들이 갈까’ 또는 ‘억새 보러 가을여행 갈까’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을 은유하기도 한다.

### 재료의 감각

건물은 콘크리트 뼈대에 철과 유리만 입힌 상태로 완성되었다. 감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혔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가 철판과 유리 사이에서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위아래로 살짝 맞댄 철판 사이로 지붕 슬래브의 콘크리트 면이 보이고, 중간에 박힌 기둥과 그곳에서 이어지는 콘크리트 바닥 구조는 등산객을 위한 벤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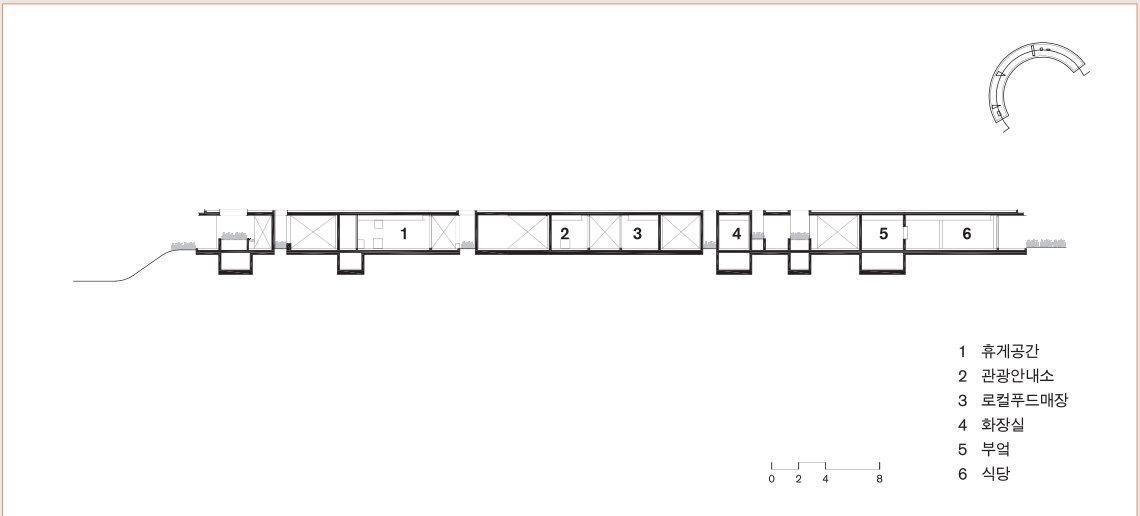
사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콘크리트와 철은 점점 자연과 동화되면서 색이 바뀌고, 비바람에 녹슬고 얼룩진다. 외장재로 사용된 내후성강(코르텐강)판은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부식되는 재료이다. 처음 설치될 때는 단색의 검정이지만 표면이 부식되기 시작하면서 밝은 오렌지색으로 변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거치면서 붉은 색깔이 조금씩 강해지다가 결국에는 검붉은 암적색으로 정착한다. 편의상 단순한 색깔로 설명하였지만 실제 보이는 것은 더욱 변화무쌍하다. 비바람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같은 면이라도 부식의 속도가 다르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과 아닌 곳의 색감이 다르다. 흐린 날과 맑은 날에 달리 보이고, 해와 달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이른 새벽에 이슬이 맺힌 강판은 단단하고 강인해 보이지만, 해 질 무렵 노을빛을 받으면 주변까지 함께 붉게 물들이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런 점에서 내후성강판은 황매산의 다채로운 날씨와 계절을 표현하는 데 제격인 재료라 생각하였다. 봄의 철쭉과는 비슷해서 보기 좋고, 여름의 청록색과는 보색으로 조화롭다. 가을의 누런 억새밭은 거칠고 강한 철판의 물성을 순화시키고, 겨울철 건물은 눈 덮인 새하얀 세상의 한 점 아이콘이 된다.

황매산은 비교적 바위가 많은 산이다. 그래서 등산로 바닥에는 흙과 함께 조각난 돌이 많았다. 나는 건물 바닥에 철판을 얇게 접어 주차장과 경계를 만든 다음 안쪽에 회색 조약돌을 깔았다. 걷기에



- 1 관광안내소
- 2 로컬푸드매장
- 3 휴게공간
- 4 음식점
- 5 부엌
- 6 창고
- 7 화장실

평면도



- 1 휴게공간
- 2 관광안내소
- 3 로컬푸드매장
- 4 화장실
- 5 부엌
- 6 식당

단면도



상 틈을 통해 만들어낸 휴식공간  
중 내후성강판과 가을 억새  
하 다양한 외장재로 완성된 공간

는 다소 불편하지만 발바닥의 느낌과 소리가 산행을 할 때 느껴지는 감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건축재료가 가진 물성이 가장 돋보일 때는 눈으로 보는 시각각이 아니라 손과 발로 느끼는 촉감과 귀로 기억하는 청각을 통해 인지될 때이다. 페터 Zumthor(Peter Zumthor)의 발스 온천은 나의 이러한 사고에 확신을 주었다. 맨발과 맨손으로 느꼈던 편마암 바닥과 벽의 까끌까끌한 촉감은 그곳의 기억을 내 몸에 각인시켰다. 좁고 높은 공간에서 증폭된 온천탕의 물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다. 황매산의 절경 또한 이곳에서 느끼는 발의 감촉과 작은 돌이 부딪치며 났던 소리와 함께 기억되기를 바란다.

### 황매산 가는 길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간 후 렌터카를 빌려 다시 2시간 가까이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황매산은 이젠 내가 가장 많이 올라가 본 산이 되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가을, 현장으로 가는 나의 머릿속에는 항상 은빛 억새밭이 펼쳐졌다. 현장방문에 하루를 온전하게 사용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오랜만에 헤드셋까지 가방에 챙겨가는 내 모습을 보면 소풍을 가는 건지 현장감리를 하러 가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출사 명소로도 유명한 억새군락지는 우리 땅에서는 보기 힘든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황매평전의 억새군락을 볼 때면 이상하게 스웨덴 스톡홀름 교외에 있는 우드랜드 묘지공원의 인공 언덕이 떠오른다. 시구르드 레베렌츠(Sigurd Lewerentz)가 설계한 '명상의 숲' 벤치에 앉아서 내려다본 주변의 전경이 황매산 억새밭 속에서 내려다본 황매평전과 중첩되어 보인다. 지형이 비슷해서 생긴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고,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인공 언덕의 지형이 황매평전에 개입한 인간의 흔적과 겹쳐 보였을 수도 있다. 문득 세월의 힘으로 많은 것을 되돌려 놓은 자연의 섭리가 무지한 건축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빨리 가을이 오고 몹쓸 코로나19 팬데믹도 사라지면 은빛으로 일렁이는 억새밭으로 뒤덮인 황매평전을 보러 함천으로 소풍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 공공과 민간의 합작품

‘철쭉과 역사 사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 낸 흔치 않은 프로젝트이다. 합천군이 발주를 내었지만 원래 이곳에서 식당과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이 만든 조합이 사업비용의 절반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였다. 한두 명이 아니라 181명이나 된다. 지역주민 181명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건축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설계와 공사 과정에도 주민들의 관심은 대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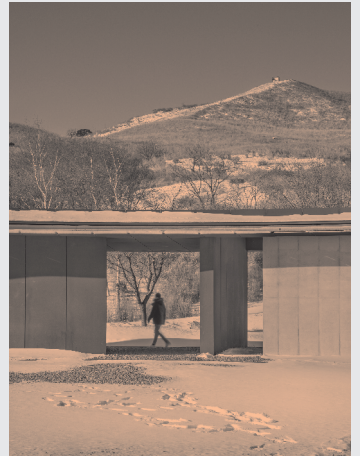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프로젝트이지만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다. 우선 건물의 모양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가능하면 높고 크게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단층에 낮게 깔린 건물의 모양에 대부분의 주민이 공감하지 않았다. 그것도 중간중간 비어낸 모습을 보고 “왜 아까운 공간을 낭비하느냐”라며 몇몇 주민은 내게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두 번째 걸림돌은 건축의 외장 재료였다. 늘 그렇듯이 흔히 볼 수 있는 석재, 벽돌, 알루미늄 패널 같은 건축재료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있다. 새로운 건축 재료를 사용하거나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건축가에게는 항상 도전이다. 그렇다고 내후성강(코르텐강)판이나 노출콘크리트가 실험적인 재료는 아니다. 다만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재료이고 내후성강(코르텐강)의 녹스는 특성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요청으로 재료에 대한 안내문이 건물 입구에 세워졌다.

하지만 건축가인 나는 건물이 완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후성강의 색깔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설계 초기에 예상하였던 대로 색감이 변화하면서 주변의 자연이나 계절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이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 같았다. 준공 직후에는 너무 검게 보여 다소 우려되었던 건물의 전체적인 색감이 두 달 후 방문하였을 때는 밝고 산뜻한 오렌지빛으로 변해 있었다. 마침 봄철이라 주변의 철쭉과 아주 잘 어울렸다. 여름에 갔을 때는 점점 색깔이 암적색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해가 바뀌면서 제 색깔을 찾아갔다.

한동안 감리 현장을 갈 때는 주민들을 피해 다니곤 하였다. 우리가 초청 건축가가 아니라 입찰이나 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축가였다면 당초의 설계의도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하였다. 다행히 건축가의 의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고 나를 초청해 주었던 발주처 공무원들이 큰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었다.

© 박지현 / (주)디민건축사무소 제공



상 눈 내린 ‘철쭉과 역사 사이’  
하 황매산을 내려다 보는 ‘철쭉과 역사 사이’



상  
하  
역새밭 사이로 보이는 건축  
황매평전과 작은 계곡 사이로 보이는  
'철쭉과 역새 사이'

당시 합천군수와 부군수도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다. 합천에도 정말 좋은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다던 그들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졌다.

그 결과 '철쭉과 역새 사이'가 한국건축가협회상을 탔을 때 나보다 공무원들이 더 좋아하였다. 이젠 주민들에게 큰소리칠 수 있다고,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다면서 흥분하였다. 되돌아보니 나를 막아주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공무원들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후배이고 친구의 자식이고 친척일 텐데 크게 내색하지 않고 그 많은 원망을 참 잘 막아 주었다. 감사한 일이다. 얼마 안 있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도 받았다. 건축가가 아니라 합천군이 받는 상이다. 그것도 대통령상이다.

한국건축가협회상과 공간문화대상 수상식장에는 1년여간 함께 고생하였던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대형 현수막을 들고 연단에 올라와 축하해 주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대형버스를 빌려 지역주민들까지 모두 올라오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얼마 후 사진도 하나 보내 주었다. 합천시내에 수상 축하를 알리는 현수막 40개를 걸었다고 하였다. 나 역시 상을 받고 이렇게 기뻐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이제는 프로젝트 현장에 가면 항상 인사를 받는다. 나에게 호통치던 분들까지 나를 반갑게 맞아 준다.

아직까지 한국의 공공건축은 참 힘겹다. 민간 프로젝트를 할 때보다 몇 배는 힘이 든다. 아무리 좋은 계획안으로 시작하더라도 여러 번의 심의와 주변의 입김과 의도치 않은 변수들로 초기의 설계의도는 변질되고 프로젝트는 망가져 간다. 그나마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설계의지를 그런대로 구현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이마저 불가능하다. 결국 힘을 쓴 만큼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좋은 의도와 열정으로 공공건축에 참여하는 얼마 안 되는 건축가들마저 사라질까 두렵다. 다행히 '철쭉과 역새 사이'는 성공을 하였다. 지역의 명물이 되어 주민들도, 공무원도, 건축가도 행복하다. 이런 공공건축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